

# 델타크론→XE 변이까지... '재유행 우려'

### 유럽에서는 델타·오미크론 결합된 델타크론 변이 보고 영국에서는 오미크론·스텔스 결합한 'XE' 변이도 등장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이 정점을 지나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하지만 새로운 변이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재유행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나 감염에 의한 면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바이러스의 변이가 계속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도 반복적인 재유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최근 발견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는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가 합쳐진 델타크론이 있다. 3월 의료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9일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재조합에 의해 델타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사례를 공식 확인했다.

델타크론 변이에 발견되자 전 세계는 긴장했다. 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과 델타 바이러스의 높은 치명률이 합쳐진 변이가 나올 경우 방역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아직까지 델타크론이 위협적인 변이가 될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 이 변이는 3월30일 기준으로 프랑

스 70건, 덴마크 8건 등 유럽에서 81건 가량이 발견됐고 미국과 호주 등에서도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미크론처럼 빠르게 확산되지는 않는 모습이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델타크론 변이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오미크론에서 유래했다고 보고 있다. 기존 백신 접종이나 감염을 통한 항체 형성으로 델타크론 변이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델타크론의 임상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 않아 크게 우려할 요소는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델타크론은 오미크론과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월부터 나왔는데 아직 유행하고 있지는 않다.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이러스 변이의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만한 부분이다. 전파력과 중증화율이 높아진 변이가 나타날 경우 대유행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기존 오미크론 변이(BA1)와 우세종화 돼가고 있는 스텔스 오미

크론 변이(BA2)가 결합한 새로운 변이까지 등장했다. XE 변이로 명명된 이 바이러스는 영국에서 감염자가 600건 이상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텔스 오미크론이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30~50% 이상 강해진 점을 고려하면 XE 변이에서 전파력이 더욱 강화됐을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XE가 BA2보다 약 10% 더 전파력이 좋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바이러스 변이로 인해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유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 감소는 다양한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가 지속되면서 재감염이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감염을 통한 면역도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줄어들 것임은 예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다음 유행이 곧바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재의 유행도 급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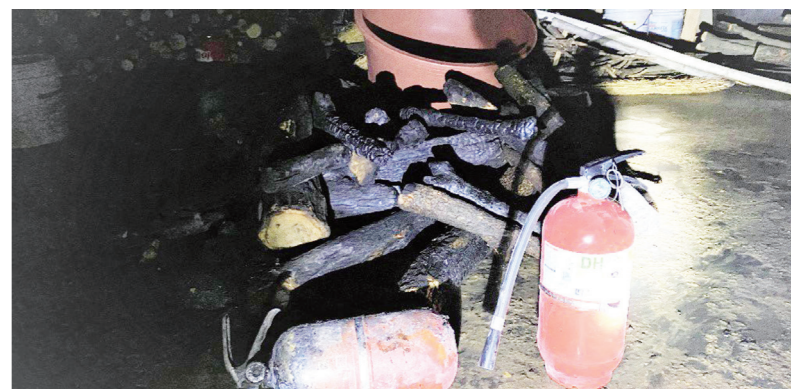
하게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게 해준다"며 "이번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감소세 이후에도 다시 중간 정도 규모의 유행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전파력이 높은 변이가 살아남아 독감처럼 토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최영준 고려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최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COVID-19 소아청소년 감염 현황과 대책' 온라인 포럼에서 "지난 40년간 나타났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결국 면역이 미성숙한 소아를 중심으로 토착화되는 결과를 보였다"며 "결국 전파력이 굉장히 높고 중증도가 낮은 지금 오미크론 변이와 같은 모습의 우세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소아의 경우 성인에 비해 면역계가 덜 발달했기 때문에 성인에서와 같은 과염증에 의한 중증화는 적다"면서도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 질병의 중증도는 낮고 사망도 적지만 유행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중증 감염과 사망 사례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 감염된 사람들의 숫자인 분모가 커지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흉역, 백일해와 같은 부담을 주는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오유나 기자



### 광양소방,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종합대책 추진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계속되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주택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광양=심종섭기자



### 담양소방,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개최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의용소방대의 역사를 기념하고 지금까지 써왔던 숭고한 봉사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 진도소방,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개최'

진도소방서는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3월 29일 진도군 임회면사무소 복지회관에서 소방공무원과 진도군 의용소방대원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진도=조상용기자



### 광주 남부소방, 봄철 대형공사장 '현장안전컨설팅' 실시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경자)는 지난 3월 28일 남구 압촌동에 위치한 제일 풍경채 아파트 공사장을 방문해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현장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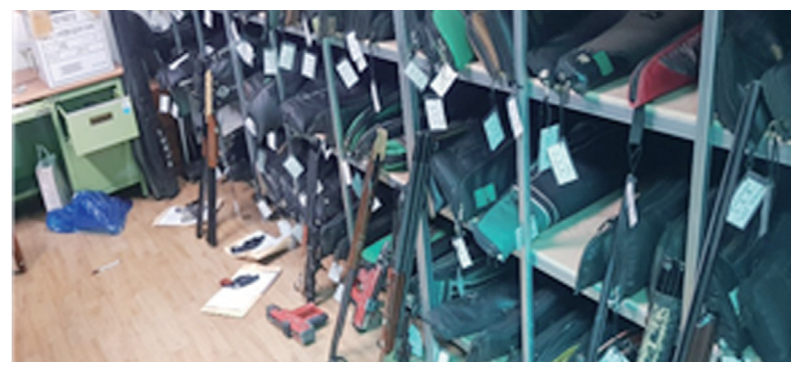
최이슬기자



### 나주경찰, 나주시태권도협회와 업무협약 추진

나주경찰서(서장 김선우)는 3월 29일 경찰서 2층 영산마루(소회의실)에서 나주시태권도협회와 함께 안전한 나주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기동재본부



### 무안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무안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총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에 대해 자진신고를 접수한다.

무안=이기성기자



### '포켓몬빵 원하는 아이를 위해'

포켓몬 빵 인기가 계속되고 있는 3일 오전 서울 시내 대형마트 앞에서 고객들이 포켓몬 빵을 사기 위해 줄 서서 대기하고 있다.

### 경찰, 오늘부터 강·절도·폭력 집중단속 기간

#### "민생범죄 대응 총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4일부터 7월12일까지 100일간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 폭력성 범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강·절도 및 장물사범이다. 만약 상습성이 확인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장물사범은 역추적을 통해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귀금속 업소나 중고거래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품 회수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길거리, 상점, 대중교통, 사무실, 근로현장 등 생활 주변 폭력성 범죄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의료 현장에서의 폭력 행위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흉기를 이용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범죄는 죄질이 중하다고 보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키로 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재범 등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이 집중지휘하거나 전담팀을 편성할 계획이다.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명 조서 작성을 활용하거나 경미한 범법행위는 처벌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피해자의 신고나 제보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국수본은 "총 범죄 발생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며 "경찰의 우수한 수사역량을 믿고 주변 피해 사실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슬비기자

## 염전 인권침해 14건...대출금 편취·무임금 노동

### 14건중, 4건 검찰 송치

염전에서 일한 장애인의 임금을 주지 않거나 종사자의 명의로 수 억원의 대출을 받는 등 인권을 침해한 염전업자 등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염전 인권침해 수사전담팀은 염전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 14건을 수사해 이 중 A(48)씨 등 4건을 검찰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염전에서 일하는 장애인에게 10여 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상습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염전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 장애인 등을 유인한 직업소개소장 등 7명이 적발됐다.

직업소개소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소개비 300만 원을 받고 염전 종사자 등을 소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염전 업자 B씨는 종사자의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3억4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아울러 염전 피해자 중 장애가 의심되는 6명 중 2명은 장애인 단체 등과 협력해 명의 장애인 등록했으며 4명은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4일부터 7월 3일까지 3개월 동안 '도사지역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추가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염전·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감금·폭행·임금갈취 행

위, 장애인·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 상대 취업 방자 영리목적 약취·유인 행위, 무등록 직업소개행위, 직업소개소에서 숙박·의복·유형비 명목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선불금 편취행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2달간 수사를 통해, 염전 종사자의 근로·생활 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염전 근로자 인권실태 정기 조사 실시 관련 법률 보완, 근로강요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경계성 장애 의심자에 대한 선제적인 장애인 등록 추진 등의 대책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환기자

## 광주서 원룸 화재...1명 화상·5명 대피

지난 2일 오후 6시 44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3층 규모 원룸 2층 한 세대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12분 만

에 꺼졌다. 이 불로 해당 세대에 사는 A(54·여)씨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주민 5명이 긴급 대피했

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이슬비기자